

KOBA 2018 1층 Hall A 오디오 장비 Review

이번 KOBA에서 오디오 부분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감 오디오 제작의 도구들이 나왔다라는 점이다. 기존 장비들이 5.1 채널 오디오 모니터링 위주였다면 이제는 실감 오디오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채널의 모니터링을 지원해주는 장비들이 보였다. DAW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믹싱 콘솔에서도 이제 더 많은 채널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MPEG-H의 몰입형 사운드 규격인 7.1.4 채널의 리스닝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NHK에서 개발한 22.2 채널 사운드도 시연되었다.

실감 오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도구들도 선보였다. 젠하이저에서는 실감 오디오를 수음하기 위한 AMBEO 마이크를 전시했는데 기존의 AMBEO에서 진화한 AMBEO 스마트 헤드셋을 출시했다. 기존의 AMBEO 마이크가 Bar 타입의 다채널 마이크였다면 스마트 헤드셋은



뮤직메트로에서 시연한 7.1.4 채널 리스닝



타무라에서 시연한 22.2 채널 리스닝

이어폰처럼 귀에 착용하고 수음을 하는 마이크이다. 마치 더미 헤드에 마이크를 장착한 듯 사용자는 스마트 헤드셋을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수음하여 실감나는 바이노럴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노럴 사운드 녹음을 위해 기존에는 무거운 더미헤드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가벼운 녹음도 가능해졌다. 3Dio 마이크는 귀 모양을 재현하여 컷바퀴가 갖는 오디오 특성이 수음 시 적용되도록 제작하였다.



3Dio Free Space 마이크



젠하이저의 AMBEO 스마트 헤드셋



젠하이저 AMBEO 마이크



젠하이저의 AMBEO 스마트 헤드셋 시연

개인 소비자를 위한 전시도 늘었다. 이전 KOBA에서는 전시 타겟이 주로 방송국, 스튜디오, PA를 위한 전시였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장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서 1인 미디어를 위한 장비들도 전시가 되었다. 그리고 특색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과 음질의 스피커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Hi-Fi Audio 초대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Hi-Fi 오디오 장비들을 선보여서 전시회 관람객의 흥미를 이끌 수 있었다. 🎧



1인 방송 미디어 스튜디오



다양한 디자인의 스피커들